

국문초록

‘사상’을 찾아가는 여정 : 일본의 중국 인식과 중국학 | 양일모

투고일자: 2011년 12월 8일 | 심사완료일자: 2011년 12월 21일 | 게재확정일자: 2012년 1월 26일

21세기에 들어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세계사의 무대에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바라보면서, 일본은 중국을 군사적 위협으로 때로는 여전히 일본보다 뒤쳐진 혼돈의 세계로 보기도 한다. 일본의 중국 인식이란 일본의 독자적 사유과정이라기보다는 일본과 중국 상호간의 조건에 의해 변화하는 상관적 함수이다. 그 조건이란 근대 민족국가 건설 과정에서 생겨난 역사적 요소와 자본주의적 세계체제가 가속화되어 가는 현실 속에서 야기된 동아시아질서의 패권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일본에서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관찰과 연구에서는 실체를 파악하는 것보다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과 관념의 문제가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과 인식, 그리고 상상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언론이나 민간에서 나타나는 반중과 친중, 혐오감과 친밀감 등과 같은 평가는 인식상의 표면적인 속성에 불과할 뿐이다. 인식이란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 사이에서 야기되는 복잡한 관계이며, 표피적 속성으로 인식의 문제를 다루게 되면 그러한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할 뿐이다. 따라서 인식의 문제는 표면적인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 인식 주체의 시선과 인식 대상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인식 주체의 시선을 검토하는 일은 중국을 바라보는 시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따져보는 작업이며, 반성적 사유 속에서 전개되는 학적인 탐구에 속한다. 고대 일본의 한학(漢學)에서 시작하여, 메이지 시대의 지나학, 전후의 중국학 혹은 중국 연구는 중국이라는 대상의 실상을 알려는 노력이며, 한편으로는 ‘왜 중국을 말하는가’라는 인식 주체의 자기반성을 요청하는 고뇌에 찬 작업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 글은 전후 일본 중국학의 성립과 전개 과정 속에서 일본이라는 인식 주체의 시선상의 변화를 보여 주는 텍스트를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나아가 일본의 중국학이 중국을 대상으로서, 한편으로는 방법으로서, 혹은 사상과제로서 설정하는 과정을 밝아 가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일본 특히 지식인들의 반성적 사유와 사상과제의 기획이 역사와 현실의 역학 관계 속에서 변화하고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주제어: 일본, 중국, 사상, 지나, 중국 인식, 중국 연구, 중국학, 다케우치 요시미, 미조구치 유조, 아마무로 신이치

모멸, 취미, 그리고 동경에서 위협으로 : 근대일본 지식인의 중국 표상 | 류젠후이

투고일자: 2012년 1월 9일 | 심사완료일자: 2012년 1월 17일 | 게재확정일자: 2012년 1월 26일

최근 중국의 국력이 점차 증대되면서 일본에서 소위 ‘중국위협론’이 거의 범람이라 해야 할 정도로 각종 미디어에 넘쳐나고 있다. 메이지유신 이래 150년을 돌이켜보건대, 중국이 이 정도로 일본 앞에 우뚝 선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상황은 일본인으로서의 역사상 최초로 조우하게 된 사태이고, 그에 대한 반응 가운데 하나로 ‘중국위협론’, 또는 그 거울상으로 ‘중국붕괴론’이 갑작스레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그리 이해하기 어려운 일은 아니다. 다만, 중국에 대한 이런 일련의 인식이 진정 중국의 역사, 특히 근대 이후의 역사를 충실히 검토하여 이성적으로 얻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생각해 보면, 메이지 이래의 일본은 일관되게 서양수용, 즉 근대화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수량적 우열관계, 나아가 질적 우열관계로 치환하여 중국을 관찰하고 인식해 왔다. 그 결과, 줄곧 근대국가의 논리에 서서 중국을 모멸하거나 취미의 대상으로 상정해 왔으며, 또 전후에는 일시적으로 동경의 대상으로 삼았던 적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들은 모두 한때 거대한 ‘제국’이었던 나라가 1백 년에 걸쳐 붕괴하고 또 다른 1백 년에 걸쳐 하나의 국민국가로 재건해 온 과정을 무시하거나 이를 정확히 인식할 수 없었기에 생겨난 오해에서 비롯된 허상일 따름이다. 그리고 오늘날 범람하는 위협론은 말하자면 이 허상이 낳은 당연한 귀결이자 그 결정판일 뿐이다.

물론, 필자가 이렇게 판단한다고 해서 현재의 중국, 특히 그 ‘팽창’에 문제가 없다는 것 인가 하면 결코 그런 의미는 아니다. 거대‘제국’이었던 중국이 하나의 ‘국민국가’로 재건하는 과정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모순과 혼란, 폭주가 발생했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분명한 사실이다. 문제는 이런 여러 현상에 어떻게 역사성을 부여하여 그 내적 논리를 포착할 것인가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일본은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전전과 마찬가지로 ‘중국 없는 중국상’을 계속 양산해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주제어: 중국표상, 국민국가, 아이덴티티, 중국취미, 속죄의식, 혁명, 동경, 위협론

대두하는 중국과 재일 중국인 커뮤니티의 변화 | 손안석

투고일자: 2011년 12월 8일 | 심사완료일자: 2011년 12월 20일 | 게재확정일자: 2012년 1월 26일

본고는 북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움직임에 정치, 경제, 혹은 군사분야가 아닌 화교와 유학생의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의 중국의 경제발전이 동북아시아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거대함에 대하여서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중국의 대두는 재일 중국인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일까. 본고는 우선 일본 화교사회의 개략과 변화를 메이지시대의 나가사키, 다이쇼시대의 고베, 쇼와시대의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의 유학생 급등을 일본의 출입국관리국과 입관협회 등의 통계수치를 소재로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1990년 이후에 도쿄 이케부쿠로에 형성되기 시작한 중국인 커뮤니티의 개략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일본사회가 새로운 외국인 커뮤니티의 형성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입관협회가 편찬하고 있는 잡지 『국제인류』(国際人流)의 기사를 통하여 소개하고 있다. 1980년대의 개혁개방 이후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위상은 일본이라는 아시아의 우등생 모델을 넘어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지. 근대 이후 동일민족국가를 추구하는 일본사회에서 과연 중국, 혹은 외국인 커뮤니티라는 이민사회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일본의 현주소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동질성이 강한 사회에서 외국인 커뮤니티의 형성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의 문제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자화상이기도 한 것이다.

주제어: 재일 중국인, 신화교, 유학생 커뮤니티, 입관협회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론과 중국: 구상과 현실 | 이철호

투고일자: 2011년 12월 7일 | 심사완료일자: 2012년 1월 3일 | 게재확정일자: 2012년 1월 26일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은 21세기 일본 외교의 변형을 표상한다. 이 글은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정책적 내용을 ‘동아시아의 귀환’과 ‘중국의 부상’이라는 조건 속에서 검토하고 동아시아의 진화와 지역질서의 변환에 갖는 함의를 찾는다. 특히 지역주의의 프로젝트가 내포한 탈국제정치적 성격이 동아시아 전통국제질서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정책을 동아시아 시공간의 구조와 장기지속의 패턴 속에서 검토한다. 이를 통해 넓게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특수성을 성찰하고 좁게는 일본 지역주의 정책의 이중성을 규명한다.

주제어: 일본, 동아시아, 지역주의, 중국, 공동체, 아세안

중국경제의 부상과 일중 경제관계 | 김규판

투고일자: 2011년 12월 10일 | 심사완료일자: 2011년 12월 20일 | 게재확정일자: 2012년 1월 26일

본고는 2000년대 이후 중국경제의 위상이 G-2로 격상되었음을 확인하고, 일본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리스크와 중국위협론을 주로 경제 측면에서 검증하고 있다. 중국리스크란 중국이 지금과 같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인데, 본고는 현재 중국기업의 기술수준이나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농촌인구의 도시유입 한계에 따른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면, 중국이 ‘중진국의 덩’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한다. 그런데 중국의 부상은 일본에게 군사적 측면은 물론이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커다란 불안요소라는 중국위협론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즉, 2000년대 들어 발생한 ODA 공여중단이나 동중국해를 둘러싼 일중 간 자원개발 분쟁, 그리고 희토류를 둘러싼 자원분쟁을 보면, 중국위협론은 분명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나,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일본이 국내시장을 중국에 내주고 있다든지 일본기업의 대중 직접투자 급증으로 일본 국내에 산업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다든지 등의 근거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춰 볼 때, 일중 경제관계는 상호보완관계로 인식해야 한다는 게 본고의 주장이다.

주제어: 중국리스크, 중국위협론, 일중경제관계, 동중국해에서의 일중자원분쟁

전후일본의 보수주의와 『고코로』 | 장인성

투고일자: 2011년 12월 6일 | 심사완료일자: 2011년 12월 23일 | 게재확정일자: 2012년 1월 26일

탈냉전과 지구화 맥락의 현대일본에서 국가의식과 애국심을 고양시키려는 보수의 정치화가 현저해지고 있다. 개인의 삶과 자유를 중시하는 일상적 보수는 퇴조한 듯 보인다. 하지만 전후일본의 보수주의는 일본인들의 일상적 보수를 알아야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월간문예지 『고코로』(1948~1981)에 참여한 보수지식인들의 활동과 사상에서 전후일본에서 영위된 일상적 보수의 모습을 읽어 낼 수 있다.

아베 요시시게, 무사노코지 사네아쓰, 시가 나오야 등 다이쇼 교양주의와 자유주의를 사상적 기조로 삼았던 ‘올드 리버럴리스트’들은 전후에 『고코로』를 매개로 유연한 지식인 클러스터를 이루면서 언설 활동을 주도했다. 고코로 보수주의자들은 패전 직후와 냉전 초기에 전후일본의 지식사회를 주도한 『세계』 지식인들의 진보주의와도 거리를 두었고, 『사상의 과학』 지식인들의 과학주의에도 대항하면서, 자유주의와 교양주의에 기초한 문화적 보수주의를 표방했다.

고코로 보수주의자들은 투쟁과 정치와 이론보다는 교양과 문화와 체험을 중시했다. 진보지식인들의 정치적 민주국가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교양과 문화를 중시하는 문화

국가를 선호했으며, 추상적 이념에 의거한 혁신보다는 생의 의지가 반영된 구체적 체험에 기초한 변화를 추구했다. 공동체의 질서를 전제로 개인의 자유를 용인했으며, 진보 지식인들의 이념적 절대평화론을 부정하고 생의 의지와 투쟁에 의해 구성되는 평화를 상정했다. 고코로 보수주의는 경제성장과 지구화의 경쟁적 맥락에서 교양주의와 문화주의가 설 땅을 잃으면서 투쟁적 보수로 대체될 수밖에 없었다.

주제어: 『고코로』, 『세계』, 『사상의 과학』, 전후일본, 고코로 그룹, 올드 리버럴리스트, 보수주의, 교양주의, 문화주의, 진보주의, 과학주의, 개인, 자유, 체험

영문초록 Abstract

In Search of 'Thought': Japan's Viewpoint on China and Its Sinology _ YANG IL Mo

From economic and military perspectives, China is now emerging as leading power o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tage, but some of the Japanese critics still consider it as a mere military threat or even a country of chaos. This Japanese view of China can not be regarded as belonging to the independent thought process on its own. Rather, it is kind of a correlated function which is changing with the two countries's mutual conditions. And the nature of the mutual conditions has close connection with the issues over the hegemony in the East Asian international world order, which appeared amid the building of modern nation-state and the rising of capitalistic world system.

More prominent in the Japanese observation and research on China are the elements of its viewpoint and idea than the grasping of the actual conditions of China; it is actually a problem concerning Japanese perspective on China and its awareness and imagination. Accordingly, some descriptions like anti- or pro-China(dislike or intimacy) is only superficial aspects of Japanese perception of China. Perception is a complex relation between the perceiver and the perceived, and depending on superficial aspects is apt to simplify the relation. It is necessary for perception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perceiver's viewpoint and the change of the perceived beyond superficiality.

Examining the perceiver's viewpoint should include inquiring into where the viewpoint on China stands in time, and it should belong to scientific interrogation in a reflective vein. Researches concerning the study of the Chinese Classics in ancient Japan, Sinology in the Meiji period and the China study before and after the war were only attempts to grasp the actual conditions of China and endeavor full of agony to demand the self-reflection of the perceiver; 'Why we the Japanese talk of China?'. The

present essay analyzes in broad perspective those texts which show the changing viewpoint of the perceiver, Japan, in the midst of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China study in Japan before and after the war. Furthermore, it suggests that China study confronts China as object and method of study on the one hand and task of thought on the other, and that Japanese intellectuals' reflective thought and their setting-up of task of thought are changing amid the dynamic relation of history and reality.

Keywords : Japan, China, Japan's Sinology, Japan's viewpoint on China, China Study, Takeuchi Yoshimi, Mizoguchi Yuzo, Yamamuro Shinichi

From Despising, Relishing and Longing to Fearing—How Modern Japanese Intellectuals Have Represented China _ LIU Jianhui

In recent years, witnessing the ever-intensifying growth of China's national power, the idea of "China as a threat" predominates Japanese media. For the last 150 years since Meiji Restoration, China has never been this much of a threat to Japan. It is not difficult to comprehend such rise of debates as "China as a threat" as well as "China-collapsing theory", considering that Japan has never faced such high degree of current shifts surrounding its region. The problem, however, is that it is questionable whether such series of perception toward China today are truly based on the logical understandings toward China's history, especially of the modern period.

Since the Meiji period, Japan has observed and perceived China based on its quantified as well as qualitative dominant-subordinate relationships which, with the growing receptiveness towards the West that took place during Japan's modernization process, had replaced the contextual understandings based on the chronological timeline. Accordingly, Japan adopted every reasoning of the modern states to project China as the object of despising, relishing, and longing (which dominated only for a short while after the end of the WWII). However, all these projections can only be described as either the "virtual image" or the "misunderstandings" as the result of ignoring or failing to obtain a genuine recognition of the hundreds of years of process, during which the collapse of the mammoth "empire" and the reconstruction of a single nation-state took place. And today's perception of "China as a threat" is nothing but a natural apodosis of such previous misconceptions toward China.

I am not trying to argue that the "rise of China" is without its problems.

There is no question that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from what used to be a mammoth "empire" to today's "nation-state"—has left China with contradiction, disorder, and insurgent that prevail its society today. The task is how to historicize these series of phenomena and understand their internal logic. It seems that Japan today is continuing to produce an "image of China without China."

Keywords : representation of China, nation-state, identity, China-relishing, sense of atonement, revolution, longing, China as a threat

The Emergence of China and Changes of Chinese Community in Japan

_ SON An Suk

This paper analyzes emergence of China as the major power in Northeast Asia in terms of movement of overseas Chinese(華僑) and international Chinese students. Since the 1980s, China's economic development's huge impact on Northeast Asia and the world economy is undeniable. How does this emergence of China affect Chinese communities in Japan? This paper outlines overseas Chinese communities and its changes concentrating on Nagasaki(長崎) in the Meiji era, Kobe(神戸) in Taisho era, Yokohama(横浜) in Showa era, and then introduce dramatically increasing Chinese students in Japan by statistics from Immigration Bureau of Japan Admission(日本法務省入国管理局) and Japan Immigration Association(入管協会) since the reform and opening-up of China.

By introducing Chinese community which began to form in Tokyo Ikebukuro(池袋) in 1990, this paper shows how Japanese society responded to new foreign communities' formation through a magazine called The immigration newsmagazine(『国際人流』) which is being published by Japan Immigration Association. After the 1980s' reform and opening up, on the basis of economic power in Northeast Asia, China is emerging as a superpower. This paper studied whether this status of China can overcome model of Japan as a good student, and propose a new model.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Japan's current status by whether Chinese or foreign communities are acceptable in Japanese society, which since the modern nation-state, have pursued homogeneous ethnic group nation. How the single ethnic consisted and therefore strongly homogenous society reacts with formation of a foreign community is not only Japan's concern, but also reflects our own self-portrait.

Keywords : Overseas Chinese, International Chinese students, Immigration Bureau of Japan, Tokyo Ikebukuro, foreign community in Japan

Japan's Quest for East Asian Community and China:Idea and Reality

_ LEE Cheol Ho

Japan's quest for East Asian Community represents a metamorphosis of Japanese diplomacy in 21st century. This paper reviews political contents of Japanese regional community idea in the context of 'the return of East Asia' and 'the rise of China', and seeks to find its implications for the evolution of East Asia and the transformation of regional order.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post-international political features of the East Asian regionalism are deeply rooted in the traditional regional order, this article sends Japan's regional community policy back to the structure and longlasting patterns of East Asian time-space. In doing so, it reflects the particularity of East Asian regionalism and investigates the double face of Japanese regional policy.

Keywords : Japan, East Asia, regionalism, China, community, ASEAN

The Rise of the Chinese Economy and Sino-Japanese Economic Relations

_ KIM Kyu Pan

This paper sheds light on the rise of the Chinese economy as one of the G-2 members in the 21st century, and further inspects the so called 'China Risk' and 'Chinese Threat to Japan' arguments in terms of economic perspective. First of all, it is confirmed that the Chinese economy may fall into the middle-income trap mainly due to their firms' low-level technology, low fertility rates, population aging, and wage push. However, it is shown that 'Chinese threat to Japan' in terms of economic perspective may not be as serious as it is expected. Recently, 'Chinese Threat to Japan' has been realized in a series of diplomatic episodes such as Japanese government's suspension of ODA commitments to China, and Japan-China conflicts over natural resource development in East China Sea. Notwithstanding these diplomatic conflicts between Japan and China, there is no evidence that Chinese firms dominate Japanese domestic markets or the growing increase of Japanese firms' FDI into China cause deindustrialization of Japan. These findings imply that the Japan-China economic relationship should be considered as mutually complementary, rather than incompatible.

Keywords : China Risk, Chinese Threat to Japan, Japan-China economic relationship, Japan-China conflicts over natural resource development in East China Sea

Gokoro Intellectuals' Conservatism in Postwar Japan _ JANG In Sung

In the context of the post-Cold War and globalization Japanese conservatives' activities to promote national identity and patriotism have become prominent. Accordingly it seems daily life conservatism respecting the life and freedom of the individual is decreasing. Japanese conservatism, however, cannot be properly explained without investigating into the Japanese way of acting and thinking in their life. Daily life conservatism in postwar Japan can be grasped by probing into conservative intellectuals' activities and writings in the monthly literature magazine *Gokoro* (1948~1981).

"Old liberalists" including Yoshishige Abe, Saneatsu Mushanokoji and Naoya Shiga, who had conveyed cultural liberalism in Daisho period, reappeared as liberal conservatives, forming a flexible cluster of conservative intellectuals to cope with the post-war intellectual change. *Gokoro* intellectuals expressed their conservatism based on cultural liberalism while keeping a considerable distance from Sekai intellectuals' progressivism and being antagonistic to Shisono Kagaku intellectuals' scientism.

Gokoro conservatives respected liberal culture and experience rather than politics and theory. They believed Japan must make a cultural liberal state, not a political democratic state Japanese progressivists tried to realize. They favored Japan's change inducing by people's concrete experience where the will to life worked, not its radical innovation deducing from theorists' abstract ideas. While respecting individuals' freedom they thought it must not harm the order of the community. They assumed the real peace can be constructed with the will to life and struggle, criticizing the progressivists' abstract ideas of absolute peace. *Gokoro* conservatism had to see the rise of militant conservatism when cultural liberalism had faced the competitive context of economic growth and globalization.

Keywords : *Gokoro*, *Sekai*, *Shisono Kagaku*, postwar Japan, *Gokoro* group, old liberalists, conservatism, liberalism, Culturalism, progressivism, scientism, individual, freedom, experience